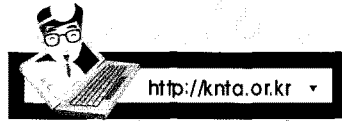


# Q&A



**Q1** | 결핵진단 후 6개월 동안 결핵 1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균이 배출되어 균 검사 결과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로 판정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소견서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으로 입원예정입니다. 한달정도 입원한다고 들었는데 비용 및 치료 성공여부, 결핵약제 지속복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A1** |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 폐질환은 1차 항결핵제는 효과가 없고 주사제를 포함한 두세 가지 약제로 치료하게 되며 국소적질환인 경우 수술과 감수성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아직 완치나 재발률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비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결핵에 걸리셨는데, 그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밥도 먹고 오랜 시간 보내다 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언제부터 드셨는지는 모르겠고, 가족들은 방을 분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결핵이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A2** | 폐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나 15일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결핵환자와 접촉 없이 집을 방문한 것만으로 전염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환자와 잦은 접촉이 있었고 환자가 전염력이 있는 상태라면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 저희 친척분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노인들이 결핵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피부반응검사가 10mm, 객담과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구요, 비활동성이며 1가지 약을 9개월간을 복용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비활동성인데 꼭 9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나요?

**A3** | 피부 반응 검사는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검사로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와 최근 접촉 후 감염이 된 경우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으로 인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흔하지 않고 주기적인 검사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Q4** |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침하다가 목에서 피가 약간 나와 병원을 찾았고 엑스레이 CT 등을 찍었습니다. 결핵증세가 약간 있다고 가래를 받아보고 더 자세히 검사해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모유수유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유를 중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4** | 폐결핵은 수유로는 전염되지 않고 항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이라면 약을 복용하기 전이라 전염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직접 수유하지 말고 모유를 젖병에 담아서 다른 분이 먹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거나 폐결핵이라도 2주 이상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전염성이 없어지면 전과 같이 수유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산모의 여러 가지 상태가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과 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Q5** | 올해 77세이신 어머니께서 결핵성농막염을 진단받고 1달 조금 넘게 결핵약을 복용 중입니다. 다행히 예후는 좋아 물은 거의 사라졌으나 극심한 식욕부진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1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울렁거림을 호소하시는데, 그 증상은 주로 오전에 발생합니다. 또 약 복용 후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죽과 국만 드시며 지속적으로 설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고혈압과 만성위축성위염 등을 함께 갖고 계시는데, 드시는 약이 많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A5** | 연세도 많으신데 질환 자체와 복용 약으로 인한 불편감이 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핵으로 인한 무력감,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은 병이 나아지면서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나 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위장장애라면 차츰 호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나누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 현재 3달 가량 결핵약 복용중입니다. 올해 7월 정기종합검진시 흉부 CT검사를 했는데요, 검진결과 소견에 폐기포, 폐경변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는 X-RAY, 채혈, 객담검사였고요, 종합병원에서는 재검사 후 폐결핵이 의심되니 결핵약을 복용하라고 하여 현재 계속 복용 중입니다. 객담검사에서 결핵균 검출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 쉴 때 등과 왼쪽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결핵이 맞다면 내성이 생길까봐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폐결핵과 폐기포가 X-RAY나 CT 상으로 확연히 구별 안 되는 병인가요? 결핵균이 검출 안 되었는데 종합검진 소견이 폐결핵으로 나와서요.

**A6** | 흉부사진이나 객담 검사로 쉽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흉부 사진 소견이 다른 염증성 질환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객담 검사에서 균이 검출 안 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약제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참기 보다는 담당선생님께 증상을 말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